

‘2023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역량 모은다

전남도 조직위 출범...언론·경제·문화 등 각계 한마음
목포종합경기장 내년 7월 완공...대회 준비 ‘착착’

2023년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각계각층이 역량을 총결집한다.

전남도는 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양대 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창립총회는 김영록 지사와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대 체전 대회기 전달식,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관기관과 단체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은 조직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언론, 경제·금융, 문화예술, 체육, 직능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138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위원회는 ‘생명의 땅 전남에서 하나되는 힘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과 함께하는 화합, 감동, 희망 체전’

을 목표로 전국체전 준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홍보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와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김영록 지사는 “내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온 국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관광·문화·스포츠 대축제의 장이자, 화합과 감동의 멋진 무대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더 위대한 전남’으로 발돋움하는데 든든한 발판이 될 성공체전이 되도록 조직위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1월 17부 79팀이 참여하는 ‘성공개최추진단’을 구성하고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분야별 실행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했다.

또한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울산종합운동장 일원에 ‘전남 홍보관’을 운영해 참가 선수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기념품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제104



체전 조직위 창립

6일 오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체전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남 관광 홍보 활동을 펼쳤다.

오는 15일에는 대회 붐업 조성을 위해 지역의 관문인 목포역 광장에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막식과 함께 D-30일 행사를 개최해 양대 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내년 초부터는 자원봉사단과 도민 서포터즈 모집, 성화 채화·봉송 구상 등 대회 운영 준비, 숙박·교통·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손님맞이 준비, 체전과 함께 즐길 각종 문화행사와 관광콘텐츠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개막식과 폐회식이 열린 1만6천46

8석 규모의 목포종합경기장은 지상 3층 연면적 2만6천468㎡ 규모로 내년 7월까지 건립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을 66%를 기록하고 있는 목포종합경기장에는 총 935억원(국비 200억원, 도비 230억원, 시비 5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열린다.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을 분산 개최한다. 이어 열릴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도내 12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김재정기자

“잘 싸웠다” 투혼의 대한민국 월드컵 여정 마무리

세계 1위 브라질에 1-4 완패...사상 첫 원정 8강 꿈 좌절
‘빌드업 축구’ 과거와 다른 경기력 최대 수확 4년후 기대



최선을 다했지만 세계 1위 브라질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사상 첫 원정 8강이라는 꿈도 4년 후로 미뤄졌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6일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에 1대4로 완패했다. >관련기사 16면

12년 만의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의 목표를 이뤘지만 여전히 세계의 벽은 높은 것을 실감했다.

‘마스크 투혼’ 송훈민이 앞선 조별리그 3경기와 마찬가지로 풀타임 활약하며 팀을 이끌었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조별리그 1, 2차전 승리로 일찌감치 16강을 확정짓는 브라질은 3차전에서 비주전들을 투입, 주전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준 반면, 한국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것을 쏟아 부은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끝난 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그라운드에 섰다.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했으나 몸은 무거웠고, 한수위 개인 기량을 갖춘 브라질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벤투호는 브라질전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극복하지 못했으나 조별리그 3경

기에서 보여준 투혼은 경기를 지켜본 팬들을 열광하게 했다. 1차전에서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섰고, 2차전에서는 가나에게 2대3으로 졌지만 먼저 2골을 내주고도 조규성의 멀티골로 한때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3차전에서는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축구는 벤투 감독과 함께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를 덧입힌 한국 축구는 월드컵에서도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강팀들을 상대로 중원에서 당당히 맞부딪쳐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우리도 강팀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젊은피’ 들의 재

능과 경쟁력을 확인하는 수확도 거뒀다. 당당히 대표팀 주축 공격수로 자리매김한 조규성의 성장은 눈부셨다. 특히 가나전에서는 특유의 장점인 장신을 활용,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며 진가를 입증했다.

대표팀 막내로 우여곡절 끝에 월드컵 무대에 처음 선 이강인의 선전도 한국 축구 미래를 밝게 했다. 이강인은 가나전 교체 투입 1분 만에 한발 빠른 환상적인 크로스로 조규성의 첫 골을 도우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조별리그 내내 벤치를 지켰던 미드필더 백승호는 브라질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갓 스물을 넘은 나이에 벤투호의 주축이 된 이들의 활약은 한국 축구의 더 나은 4년 후를 기대하게 했다. /박희중기자·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 5천명 육박

광주 2천20명·전남 2천469명 감염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명에 육박하는 등 재유행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6일 광주·전남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2천20명, 전남 2천469명 등 총 4천68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발생 추이는 ▲12월 1일 3천274명(광주 1천617명·전남 1천657명) ▲12월 2일 3천390명(광주 1천776명·전남 1천614명) ▲12월 3일 3천146명(광주 1천704명·전남 1천442명) ▲12월 4일 1천564명(광주 818명·전남 746명) 등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주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1천699명이 발생해 2주 전 1천521명보다 9.7% 증가했다.

확진자 대비 재감염 비율도 10월 9.7%에서 11월 12.3%, 12월 현재 15.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은 주간 일 평균 1천622명이 감염

됐고 감염 재생산지수는 1.07을 기록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독감 등 다른 호흡기질환보다 중증화와 치명률이 훨씬 높아 확진일 또는 접종일부터 3개월이 지난 시민들은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정기자

Today	
‘무료 사진촬영’ 속지 마세요	6면
남도 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14면
벤투감독과 4년여 동행 마침표	16면

희망2023 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성금 접수 계좌

• 광주사랑의열매 : 053-107-999990(광주은행)
• 전남사랑의열매 : 301-4000-3000-01(농협은행)

ASIA CULTURE CENTER

다양한 문화가 숨 쉬고
함께 빛날 수 있는 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